

책들

이광근*

4/22/2024

시작은 이랬다.
지금은 교수가 된 한 학생이 궁금해했다.
영문 글쓰기에 도움될 책들.
쌓이면서 변했다.
가려나눈 독서기록 정도라고 할까.
앞쪽으로 종종 더해질 것이다.
무슨.

□

- *Analog*. Robert Hassan. The MIT Press Essential Knowledge Series. MIT Press. 2023., *The Craftsman*. Richard Sennett. Yale University Press. 2008.

자극이 된 두 권이다.

아날로그. 2024년 1월 22일 MIT를 방문중이었다. 시차로 찌뿌둥한 몸을 떨쳐버릴겸 강변을 따라 뛰었다. Harvard Coop 책방에 들러 숨을 고르며 책장을 뒤지다 만난 책이다. 책 뒷면에 내가 마침 궁금해하던 것이 써있어서 주저없이 샀다.

스크린과 스마트폰에 둘러싸인 우리는 왜 아날로그 도구들에 계속 끌릴까? LP판, 만년필, 필름 카메라 등에 깊숙이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

*kwangkeunyi.snu.ac.kr

이 책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류의 진화과정은 도구를 사용했던 과정이었다. 도구는 처음에는 자연에서 본 것을 흉내낸 것들이었다. 그런 도구와 함께 자연과 일체되는 느낌을 살았고. 그러다 차츰 자연을 흉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도구들이 출현하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자연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스멀스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를 그리워한다.

그게 단가? 더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장인들(*The Craftsman*)도 읽게 되었다. *아날로그(Analog)*에서 언급한 책이다. 두 책 다 영어는 낫설었고 집중 안 되는 흐름이었다.

빠져들진 못했으나 자극이었다. 생각이 피어올랐으니. 이렇다.

내게 핵심은 디지털 대 아날로그가 아니라 가짜 대 진짜인듯하다. 아날로그도 가짜면 질색이다. 가짜 꽃과 가짜 책으로 장식한 식당이나 카페는 다시 찾지 않게 된다.

가짜 대 진짜가 아니라면, 무심한 기계 대 세심한 손과 자연? 아니면, 똑같이 찍어내는 완벽함 대 다 다른 불완전함? 그래서, 가짜는 완전해서 혼자 서겠다고 소외를 부르고. 진짜는 불완전해서 들어와 달라고 일체감을 부르고.

내가 끌리는 것들은, 함께해야 완성된다고 일체감을 부르는 빈틈있는 것들이다. 내가 짠 가구와 손수 쓴 글씨. 완벽하지 않아서 내 몸이 도와야 하는 가구. 상상과 기억이 동원되어야 파악되는 글씨. 내 끌림은 이런 진짜들을 향한다.

4/22/2024

- *Why Fish Don't Exist*. Lulu Miller.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20.

아내의 추천이었다. 금방 읽었고 오래 남았다. 채 200페이지가 되지 않는 책이다.

여러 이야기와 메시지가 뽁뽁 붙들려 연결되어있다. 그리고 설득력있게 너무나 설득력있게 내게로 스며들었다. 어떤 이의 의견이 다른 이의 몸으로 번져갈 때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마치 디디는 발을 조심하며 들어서다 새로운 깨우침으로 와-아- 하고 놀라서 감탄하는 작고 깊은 숲. 적당히 다른 나무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진초록 나무들 사이엔 섬세한 이끼가 상처없이 신비롭게 번져있고. 그런데 따로 선 나무들이 알고보니 같은 뿌리로 완전하고 섬세하게 연결된 한그루였다니.

내게 스며든 저자의 의견. 이걸 일종의 세례였다. 룰루 밀러 라는 이름을 잊지 못한다. 4/20/2024

- 불화하는 말들. 극지의 시. 무한화서. 이성복. 문학과 지성사. 2015.

“이성복 시론”이라는 부제의 세 권이다.

이성복 시집을 읽으며 인상깊었던 시들이 여럿이었다. “반다라”라는 시어를 좋아한다. 그의 해석은 이랬다. 반: 세상을 거슬러, 다: 많은 것을 겪고, 라: 비단처럼 펼쳐리라. 반·다·라.

이 세 권은 그의 시쓰기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새겨들을 말들이 많았다. 시쓰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지혜도 말끝에 흐른다. 시 읽는 내 시점도 하나 더해졌다.

세 권 총 370여 쪽 중에 20 쪽 정도를 접어놓았다. 몇 가지를 떼어오면,

- “필요 없는 것을 줄여가는 게 글쓰기예요. 쓰고나서, 아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일 먼저 치내야 해요. 대개는 너무 튀니까요.”
- “시 쓰는-읽는 건 자기 정화예요.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듯이, 밥 먹은 다음 양치질하듯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금세 지저분해지는 존재예요.” (내가 “쓰는” 위에 “읽는”으로 덧칠해 놓았다.)
- “능수능란한 삶이란 없지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 “인생이 (중략) 시작도 끝도 없는 해안 절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해요. 완성 같은 것은 애초에, 어디에도 없고 이십대 삼십대의 벼랑, 사십대 오십대의 벼랑이 있을 뿐이며, 마침내 이 몸과 마음이 소진하면 그 가파르고 위험한 벼랑이란 것도 없어지겠지요.”

책장에서 세어보니 일곱권의 이성복 시집이 모여있다. 그의 시들을 즐겼기 때문이다. 9/28/2023

- *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이성복. 문학과 지성사. 2004.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한 번 읽어봐야겠다. 너무 긴 문장과 너무 많은 페이지로 악명높은 이 소설을 읽는 한 방법을 이 책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흥미하던 최신 철학사조들을 떠받치는 예시들로 구성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고. 그 예시들이란 주인공이 겪은 여러 종류의 사랑에서 겪은 심리라인들이라고 한다. 이게 모두 당시 철학들을 떠받치는 경우가 되어준다는.

어땠을까? 이런 시각으로 이십대에 읽었던 기회가 내게 있었다면 나는 어떤 청춘을 건넠까? 모를일이겠지. 나이브하거나 서툴지 않고 잘 익은 내가 되어있었는지. 아니면 정교하지만 답답한 내가 되어있었는지.

세 개의 챕터를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믿음의 문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관념과 실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이성복의 문장들은 험겁지 않고 밀도있으면서 읽기도 수월하다. 정교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문장들이다.

내가 이렇게 느낀 이유가 뭘까. 아마도 내가 유난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그의 문장들이 하나같이 2022년 봄 이후의 나를 나란히 놓고 반추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도 빼 놓지 못했던 문장들이었다. 따로 페이지를 접기에도 모든 페이지 거의 모든 문장이 나를 살며시 흔들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전이할까. 내 몸안에 웅크리고 남을 재료들이었다. 9/17/2023

- *칸트 철학에의 초대*. 한자경. 서광사. 2006., *왜 칸트인가*. 김상환. 21세기북스. 2019.

어쩐 일일까. 서로 모를 두 사람에게서 거의 동시에 칸트를 추천받았다. 2023년 여름이었다. 한 사람은 화가였고 또 한 사람은 검사였다.

화가는 내가 그의 그림을 하나 소장하고 있다. 서울대 서양화과를 나오고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화가다. 내가 2022년 성수동에 작은 다락방을 한 칸 지어올리고 그 방에 걸 그림을 찾던차였다. 미대 아는 교수에게 수 소문해서 작품세계를 알게된 화가였다. 당차게 가차없이 그리는 작가다. 2023년 여름 한국오는 길이었다. 차 한잔하며 작품활동 이야기며 공부 이야기며 한의학 이야기까지 주고받던 중이었다. —교수님 칸트철학을 한 번 봐보세요. [칸트 철학에의 초대]를 일단 추천해요. 6/25일 일요일 점심때였다.

검사와도 익히 아는 사이이다. —교수님 칸트철학의 개념과 기계학습 이론에 나오는 개념이 관련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여름은 칸트 여름인가 보군요, 얼마전에 추천받은 책이 [칸트 철학에의 초대] 였어요. —한 권 더 추천드리면 [왜 칸트인가] 입니다. 화가를 만난 곳과 같은 곳이었다. 삼성역 파르나스 빌딩 그랜드델리(Grand Deli) 카페. 7/8일 토요일 점심때였다. 그 검사는 서울대 디지털 포렌식 석사과정에서 내 [컴퓨터학] 강의를 2018년에 들었다. 그 강의의 교과서가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였고, 최근에 낸 [기계학습을 다시 묻다]를 읽고는 어느날 내게 논문을 써보내와 주말에 만난 것이다. 칸트철학을 대학때부터 봤던 덕후였다.

이렇게 칸트철학 입문서 두 권을 읽게됐다. 읽으면서 번역했다. 문장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을 연필로 긋고 간편한 문장으로 탈바꿈시키기. 몽당연필을 쥐고 지하철에서 편집하는 재미를 즐겼다. 예를들어,

- “그렇다면 그 직관내용을 내게 소속시키는 형식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그 직관내용을 만드는 틀은 무엇인가?”
- “그렇게 보여진 나는 조금 전 순간 주관으로 활동하던 의식주체이지 바로 그 순간의 의식활동의 주체는 아니다.” → “그렇게 보여진 나는 조금 전 순간에 활동하던 나다.”
- “시공간적 존재로서의 사물의 존재방식 자체가 그것을 직관하는 인간의 직관형식, 그것도 사유형식에 의해 규정된 직관형식이라는 말이다.” → “시공간에 있는 사물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직관하는 인간에 의해 규정된다는 말이다.”

- “취미판단에 있어 표상방식이 가지는 주관적인 보편적 전달가능성은 일정한 개념을 전제함이 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구상력과 오성과의 자유로운 유동에서 나타나는 심적 상황이외의 것일 수가 없다.” → “아름답다는 느낌의 전달은 일정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구상력과 오성과 함께 동시에 작동하지만 주어진 개념들을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심적 상황이다.”

저자에게 실례지만 끈적하고 긴 문장들을 이렇게 희롱했다. 이런 독법이 뻔같은 철학책을 건너는 한 방법일수도 있겠다 싶다. (가장 친밀감있게 읽는 방법이 번역이라는데, 그런 책 읽기라고 할까.)

사람 모두가 받아들이는 진/선/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칸트의 이야기를 눈동냥하면서 문장들을 간단하게 줄이겠다고 대들다보니 지금의 과학(특히 진화론과 컴퓨터과학) 용어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이 꾸준히 보였다. 칸트가 정의한 용어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컴퓨터과학에서 다루는 개념들과 평행하네, 라는 식. 칸트의 이야기를 지금 컴퓨터과학의 어휘로 번역하면 이렇다:

- 진리는 인간이 사유하는대로 보여진다는데.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유하는 핵심 방법이 있다. 인덕(귀납, induction)과 디덕(연역, deduction)이다. “오성”이라고 하더라. 인류가 400만년동안 진화라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얻게된(“선행적”인) 공통 능력이다. 인덕은 학습이다. 특수한 예로부터 보편적인 개념으로 건너뛰는 과정이다. 여기에 디덕이 더해져서 사유한다. “구상력”은 대상을 계산가능한 데이터로 표현해서 인덕(학습)과 디덕(이치따지기)의 계산과정으로 넣는 능력이다. “초월적”이란 용어는 타고난 것도 뛰어넘고(“선행”적인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개념을 더 학습할 수 있으므로) 길러진 것도 뛰어넘는다는(학습한 것 이상으로 이미 주어진 “선행”적인 것도 갖췄다는) 의미로 읽혔다. 인류가 디덕에서 사용하는 논리문장의 공통된 문법 열개(12개의 “범주”라고 하는 것)와 그 의미도 지금의 논리학/컴퓨터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들 -언어구성자(language constructs)- 이야기다.

- 아름다움도 인간이 판단하는대로 느껴진다는데. 이때 대상 작품(예시)를 통해서 인덕하는(판단하는) 아름다움은, 현재 기계학습(인덕) 알고리즘의 능력 바깥이다. 현재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특수(예시)에서 보편(개념)으로 건너뛰는 과정에서 건너뛴 개념들의 종류를 미리 정해놔야 한다. 칸트는 후보 개념집합을 정해놓지않고 무관심아래 이루어지는 인덕(학습)과정이 아름다움의 판단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은 “천재의 예술”이라고. 또, 특정 개념에 구속받지않고 어떤 개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류 보편에 통하는 과정인게고. 설득력 있다. 아무튼, 아름답다는 판단의 인덕(학습) 과정은 현재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뛰어넘는다. 현실적인 비용에 그런 학습이(후보 개념집합을 미리 정하지않고) 기계적으로 가능할지는 컴퓨터과학자들은 아직 모른다.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아직 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건 천재가 해내는 과정이라는 칸트의 주장이 재미있게 평행하다.

8/13/2023

- *Words Are My Matter*. Ursula K. Le Guin. Mariner Books. 2019.

부제는 “Writing on Life and Books”. 2020년 2월 20일 아마존에서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미국 National Book Foundation Medalist라는 기념마크가 붙어있다.

어느 경로로 이 책을 주문하게 된건지 기억이 없다. 책과 저자를 만나게 된 경위, 교차하는 미로들. 이런 얽히고 설킨 골목길을 엮어간 속 이야기를 쓰는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스친다.

이 책은 짧은 에세이, 연설문, 책서문, 책소개, 책비평 들을 모아놨다. 원로 작가다. 2018년 타계했다.

출퇴근길에 꼬박꼬박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며 마음이 다잡혀지는 느낌을 받은 글들이 여럿이었다.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깊이가 전달되는 문장들이고 말들이었다. 지혜로운 어른이 전하는 여러 생각들. 예술과 소설과 시, 그리고 작가라는 직업 등등에 대한.

물리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이런 책읽기는 유난히도 그런 인물과의 대화 같다.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게돼 이야기 듣는. 하던 달리기를 마치려 자리에서 일어나고. 인사차 돌아보니 이미 반대편으로 일어난 뒷 모습. 뭐 이런 식의. (한강을 달리며 종종 드는 아쉬움이 있다: 중간지점 쉬는 그 벤치에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떨까. 종종 책을 들고 펼 때가 있다. 쉬면서 나누고 싶은 대화를 손에 들고 된다.)

접어 놓은 페이지가 136페이지까지 12군데다. 전체는 300페이지가 조금 넘고 뒷 부분은 책비평들이라 읽지는 않았다.

같은 저자의 다른 책도 찾아 샀다. 비슷한 에세이 책이었다. *No Time to Spare*. 같은 출판사이고 2017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재미있게도 “집담회”로부터 12/21/2021년 도착한 것으로 메모 돼 있다. 경위가 가물가물한 미로다. 7/31/2023

- *피로사회*. 한병철.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친구가 이 책을 선물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책은 21세기 지금 자유시장경제 체제안의 우리를 진단한 비평이다. 예리한, 어찌면 뼈뚫한. 왜 우리는 늘 예전 세대보다 더 바쁘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가? 모든게 개방되고 자유로워진 현대인들. 그래서 착취할 것은 자기 밖에 남지않은 현대인들. 오직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더 더를 다짐하는 우리들. 나도 물론 그러고 있고. 내가 속한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그렇다. 지구가 그렇다. 다다랐다는 성취와 함께 이제 됐다라는 선언은 어디에도 없다. 이루고나면 또 이루고싶고. 하고나면 또 하고싶고. 쓰고나면 또 쓰고싶고. 할 수 있다는 긍정아래 끝없는 자기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우뚱했다. 이 책의 진단에는 고개를 끄덕이게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에는 100% 동의는 어려웠다. 예를들어, 생명 본능에 기대는 이야기가 없는게 의아했다. 지금같은 끝없는 자기 착취의 모습이 과연 외부의 시스템 때문만인가? 생명체로서 우리 몸의 본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걸까?

읽고나서 의문은 계속 피어올랐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착취의 굴레를

벗을까? 과연 벗을 수는 있는걸까? 더 더 더 하고 싶은 충동은 호모 사피엔스의 본능 아닐까? 이 지경이 끊어올라 언제쯤 혁명을 굴리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까? 도달한다면, 그래서 새로 열리는 세상에서는 착취는 과연 사라질까? 그때되면 또다른 수준의 교묘한 스트레스가 개인과 세계를 또다시 은밀히 적셔오지 않을까?

마음에 남아 잊혀지지 않을, 해야만 하는 질문, 하지만 답이 있을수 없는 질문. 잊혀질 수 없는 이미지,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는 이미지. 이런 질문과 이미지를 던지는 용감한 예술가. 한병철은 그런 예술가라는 느낌이다. 통찰이 있는 자극. 답은 없다.

한병철의 다른 책들도 찾게되었다. 두 책을 책방 바구니에 담아두었다.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 어떤 자극일까 궁금했다. 8/8/2022

- *Bird by Bird*. Anne Lamott. Anchor Books. 1994.

2017년 12월 11일에 아마존에서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제목은 “some instructions on writing and life” “글쓰기와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다. 2018년 12월 파리 출장 왕복중에 읽었다. 특히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절정으로 빠져들었던 기억이다. 읽고나서는 “앤 라모트”라는 작가에 끌렸다. 집에 돌아와 이런 저런 검색을 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에세이를 몇 권 더 주문했다. 유튜브에서 이 작가의 강연과 인터뷰도 시청했다.

왜 이 책을 샀는지는 기억에 없다. 책쓰기에 대한 책으로 어딘가에서 추천받았던 것 아닐까 추측한다.

잔잔히 안달이 났다. 글을 쓰려는 사람은 읽기를. 작가가 되려는 사람은 읽기를. 인생을 혼돈스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읽기를. 어떤 더한 말을 여기에 기록해야 할까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읽어보기를. 너른 풀밭 맨발로 걸으며 맞던 상쾌한 바람 만발한 들꽃. 그런 때와 비슷한 마음이 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데 그런데 가슴에 꽂혀 마구 떨어지며 깊어지는 화살같기도 했고. 다시 한 번 읽을 예정이다.

표지에 베스트셀러라는 마크가 간판같이 붙어있다. 많은 독자들에게 동의한다. 솔직하고 아름답고 작고 소중하다. 따스하다. 은근 코믹하고.

혹시나해서 번역본을 찾아보았다. 다행히 [쓰기의 감각](앤 라모트 지음. 최재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이라는 책으로 2018년 9월 출간되었다. 좋은 번역이길. 8/8/2022

- *A Brief History of Thought*. Luc Ferry. Harper Perennial. 2011.

2017년 1-2월 두 달간 Stanford 대학을 방문중에 산 책이다. 부제목에 끌려 샀던 기억이다: “a philosophical guide to living” “철학으로 안내하는 먹고살기”라니. 샌프란시스코 시내 City Lights Booksellers라는 책방에서 책구경하다가 집어든 책이었다. 2월 4일로 기록 돼 있다. 서양철학의 역사를 짧고 밀도있게 훑은 책이다. 불어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영문이 살짝 꺾꺾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267쪽짜리 책이다.

철학은 왜 필요할까? 대학의 철학과는 살아남을까? 궁금하고 의심스런 마음을 정리해준 책이었다. 상큼한. 평소 동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몇 마디 파편들만 좇어가지고 있는 수준이었다. 전체를 조망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철학의 의의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철학때문에 세상살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걸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종종 만나봤지만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랬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 책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철학이라는 극한의 생각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는지. 그래서 마침내는 상식이 되어 어떤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냈는지. 아하 그랬었구나.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변화해 왔던 거구나. 서양철학으로 제한된 책이지만,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이 극한의 생각들이 유럽을 혹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치 과학 종교 문화 등 지금의 당연한 모습을 선도한 것이 왜 어떻게 철학이었는지.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그런 변화를 이끈 것인지. 큼직한 시간 단위에서 비로소 보이는.

읽고나선 부끄러웠다. 혹시 이런 내용은 요즘 대학생들이라면 서양철학 교양과목만 수강하면 꿰고 있는 건 아닐지. 나만 이제야 알게된 건 아닐지. 그런데 프랑스서 8개월간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대부분이 나

같은것인지 아무튼 위안은 되었다.

궁금했다. 지금도, 현재를 극복할 새로운 생각들은 어딘가에서 정밀하게 피워오르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낯선 첨단 의 생각들. 과학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그룹일테고. 과학이외는 어떨까? 사상가 혹은 철학자들은 현재 무슨 아이디어를 짓고 있을까?

다른 데 어디선가 읽은 구절이 기억났다. 나이들수록 이런 쪽에 에너지를 쏟으란다. “깊이로는 철학에, 높이로는 예술에” “as deep as philosophy, as high as art”. 이런 구절을 내가 기억하는건 왜냐? 앞으로의 세월은 더욱 쓴살같은 것임을 몸이 민감하게 느끼는 때에 와있기 때문일까.

책장은 나를 알고있다. 읽은 책을 쫓으면 책장은 관련된 책을 내게 드러낸다. 이 책을 읽은 후, 책장에서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J. Bronowski & Bruce Mazlish. Harper Perennial. 1962)가 우연히 다시 눈에 띄었다. 책을 뒤적였던 기억이 책에 접혀있었다. 손톱자국으로 마크해 놓은 구절들을 손으로 더듬으며 다시 읽었다. 17세기 영국 왕립학회의 상황을 알고싶어 뒤져보았던 흔적들이었다. 왜 영국 왕립학회는 당시 태동하던 과학의 성과를 처음부터 굳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평이하고 쉽고 명확하게 출판하기로 했던건지. 위선 혹은 허위의식이 넘치던 조선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인데, 그 동기를 알고싶어 살펴봤던 책이었다. 이제는 전체를 읽게 되었다. 두 책이 좋은 짝이다. *The Western...*은 *A Brief History...*보다 문장이 평이하다. 대신 책 두께는 두 배다. 출퇴근때 들고 다니기 살짝 버거운. 두 책이 같은 철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며 이해를 더하게 되었다. 책장에 감사한다. 10/26/2021

- *The Art of Gathering*. Priya Parker. Riverhead Books. 2018.

일본 다도에서 “이치고 이치에”(일기일회, 一期一會)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모든 모임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같은 사람 같은 장소라도 모든 모임은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모든 모임이 그만큼 소중한하므로 모임을 만들고 이끄는 데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공감가는 말이다.

모임을 호스트할 때 더 의미있는 모임을 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들을 정리한 책이다. 뭐든 상식만으로는 어느 이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구체

적이고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어보니 모임을 호스트하는 것도 그랬다. 더 의미있으려면 상식 이상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평소에 모임을 만들면서 좀 더 의미있는 시간을 꾸리는데 관심이 있었다. 랩 쇼앤텔(Show & Tell, 세미나)도 그렇고, 2008-2015년 선도연구센터를 이끌면서 1년에 두 번 교수 10여명과 대학원생 6-70명이 모이던 센터 워샵을 꾸리면서도 그렇고. 모임에서 보다 풍부한 결과를 얻기위해 모임을 호스팅하는 사람이 어떤 디테일에 신경써야 하는지.

모임 디자인의 지혜 중 일부는 이렇다:

- 모임의 호스트는 디자이너다. 모임은 민주적이지 않다. 호스트가 모임의 구조와 규칙을 만든다.
- 모임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보라.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초대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공유하라. 사람들이 모임 초대에 동의할 때 호스트가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 정의한 목적을 초대할 사람들에게 미리 정확히 알린다. 그래서 참석하게되면 모임에 올 때 준비할 것도 미리 알린다. 모임에 오면서 모임에 맞는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 모임의 이름을 지을때도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임의 취지를 알고 느낄 수 있도록.
- 특별한 방식으로 모이도록 모임의 규칙을 사람들에게 미리 전달한다. 규칙은 예를들어: 모임에 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해야 한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같이 섞여 참여한다, 걸돌지 않는다; 식사때 차례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의 끝을 건배제의로 표시한다, 등.
- 모임 시간이 하루를 넘길수록 진짜가 나온다. 1박 2일 모임은 3-4 시간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소통을 만든다.
- 모임 장소의 모양/인테리어가 모임의 목적과 맞아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 엄숙한 공간, 어두운 조명, 밝은 조명, 잔잔한 조명, 편안한 음식과 술 등.

-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잘 섞이게 지정한다. 자리를 옮길때도 앉는 자리가 새롭게 섞이도록 지정한다.
- 모임에 온 사람들을 자주 충분히 소개한다. 반복해서.
- 인색하면 안된다. 충분히 준비한다. 음식, 술, 차, 칭찬, 소개등.

10/13/2021

-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사사키 아타루. 자음과모음. 2012.

밤새 깨어있게 하는 책을 가끔 만난다. 이 책이 그랬다. 부제는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 밤의 기록”이다.

텍스트 이야기다. 세상의 흐름을 바꾼 혁명은 텍스트에서 시작한다고. 읽고, 다시 읽고, 쓰고, 다시 쓰고, 번역하고, 천명하는 것. 이것이 혁명의 근원이라고. 혁명의 본질은 폭력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권력의 탈취도 아니고, 텍스트의 변혁이야말로 혁명의 본질이라고. “텍스트”는 글로 한정되지 않고 노래 춤 그림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혁명은 흔히 생각하는 정치혁명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혁명들이다. 지금까지 5천년 인류 역사의 지축을 튼 혁명들이다: 루터의 종교혁명, 무하마드의 혁명, 그리고 중세 해석자 혁명. 이 혁명들이 왜 근본을 바꾼 혁명들이었는지 그리고 텍스트의 변혁이 왜 그 시작과 완성의 동력인지를 설득한다. 셋 모두 유럽지역 이야기고 종교와 관련 돼 있다는게 한계다.

필쩍뛰며 소리친다. 무엇이 두려운가. 핑계대지 말라. 텍스트의 역사는 아직 어린애 초창기일 뿐이다. 문학이 죽었다는 둥, 글은 더 이상 읽히지 않는다는 둥의 소리는 말라. 인류의 문자는 5천년밖에 되지 않은 최신 미디어다. 노래와 춤과 그림에 비하면. 그리고, 혁명을 이끈 사람들은 당시 1퍼센트 이상이 읽을 리 만무했던 문맹의 시대에 글을 써갔고 문명의 축을 틀어버렸다. 19세기까지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 지경이었지만 문학자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글로써 혁명의 물길을 뚫았다. 그들은 무엇을 믿고 그런 척박한 시대에 글을 써간 걸까? 고대 그리스의 텍스트중에 지금까지 남은 것은 겨우 0.1퍼센트뿐이다. 0.1퍼센트만 살아남아도 이기는

싸움인 것이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1000명에 1명이라도 읽게되면 혁명은 올 수 있다. 예수의 말처럼 “두려워 마라, 나는 너에게 마치 펼쳐진 책처럼 될 것이다”, 혁명은 그렇게 펼쳐진 텍스트로 시작한다. 걱정말고 쓰라.

이렇게도 설득한다. 당연히 지금도 세계의 근간을 흔드는 혁명의 시작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 텍스트의 역사는 길어야 7만년, 문자로만 국한한다면 겨우 5천년일 뿐이다. 인류는 곧 멸망할거라고? 지구 생명종의 수명은 대개 400만년이고 인류는 고작 20만년을 지나왔다. 379만년 양보하더라도 1만년은 남았다. 앞으로 5천년 동안 지난 5천년간 겪은 그런 혁명은 반드시 온다.

오직 읽고 쓰고 번역하고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번역하는 텍스트의 변혁. 이로부터 혁명은 온다.

섬찐. 번뜩. 문득. 그렇다면. 여러모로 잠들지 못했다. 어디에서 이 책을 추천받았는지 기억에 없다. 상현이의 출국을 배웅하고 강남 교보문고에서 2019년 12월 31일 구입했다. 01/19/2020

- *춤춰라 우리의 밤을 그리고 이 세계에 오는 아침을 맞이하라*. 사사키 아타루. 여문책. 2016.

2020년 1월 5일 가회동 대장장이피자에서 연구실 신년교례회를 마치고 광화문 교보문고로 갔다. 사사키 아타루의 모든 책을 보고 싶었다. 그 중에서 이미 알라딘에 주문한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를 제외하고 고른 책이다. 이 책에 실린 번역에 대한 글이 특히 읽고 싶었다. “어머니의 혀를 거역하고, 다시”라는 제목의 챕터였다.

내게 모국어로 공부하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잡아 준 것이 김용옥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학술활동에서 제대로 번역하기를 소홀히 말라. 번역은 무엇보다 중요한 학술작업이다. 학자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검승부다. 철저한 번역이 쌓이지않고선 원어권을 능가하는 실력은 자라지 못한다. 영미권을 능가하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가꾸고 싶거든 번역하라.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였다. “동양학”을 “컴퓨터과학”으로 바꿔놓고 마음에 새겨두었다.

아타루의 번역론은 한 수준 더 높다. 새로운 각성으로 번역관련 내 맘에 남아있던 의구심을 거둬주었다. 하나는 도착어에 관한 것이다. 번역이라는 과정은 출발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도착어로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데 머물지 않는다. 번역은 도착어를 상처내고 확장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 순수한 도착어만으로 번역될 수 없다. 번역하는 중에 모국어는 어휘가 만들어지고 정비되고 문법마저 변형되는 변혁이 일어난다. 도착어를 상처내고 확장시키고 정비시켜라. 이게 번역이 가져오는 상호작용이다.

두 번째 각성은 더 컸다. 번역은 도착어 문화권에만 일방적으로 공헌하는 게 아니다. 번역본과 원전을 모두 합할 때 오리지널 텍스트만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던 수준의 이해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도착어로의 번역이건 모두 원전만으론 불가능한 새로운 경지로의 여정에 공헌한다.

아타루의 번역론이 과학기술 텍스트에도 맞을까? 당연하다. 뒤척이는 밤이었다. 01/19/2020

(이 책은 실망스런 번역이 종종 눈에 띄었다. 내가 추측해서 책에 수정해 놓았다. 아래와 같다.)

- p.47:8. 성장한다면 → 살아남는다면
- p.47:-5. 다른 순간적으로 → 다른, 순간적으로
- p.47:-2. 여러 종교의 → 일종의 종교적인
- p.64:6. 조우하면서 → 조우한 이후
- p.75:9-10. 하고 우리가 그리스인과 동일한 것을 갖는 일은 → 하고, 우리가 그리스인과 비슷해 지는 것은
- p.78:6. 휠덜린의 말따나 → 휠덜린이 의심한대로
- p.81:-7. 중심에만 있습 → 중심에만 창조성은 있습
- p.85:2. 더 읽었습니다. → 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 p.90:11. 폭풍처럼 순식간에 망각하고 사라질 → 못 읽을 것 같은 두려움은 폭풍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 *The School of Life Dictionary: The Languag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School of Life. 2017.

이 책을 출퇴근길에 감탄하며 즐겁게 읽다보니 어느 날 동양고전이란 것에 회의가 들었다. [논어]가 위대하다고? 이 책을 읽으며 기원전 그것보다 2017년 이 책이 더욱 지혜가 알차다는 생각을 했다. 공짜가 살았던 시절에 그 만한 지혜를 내뿜는 것은 드물고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오늘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류의 축적된 지식의 양과 질에서 그 옛날은 오늘날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다보니, “성인”의 동양고전이란게 요즘 보통 사람이 편집 할 수 있는 훨씬 더 성숙한 인류의 지혜보다 못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었다.

이 책에는 21세기까지 인류가 축적한 지혜로 넘친다. 우리의 감성지능을 세밀히 갈고 닦게 해 주는 지혜들. 각 단어마다 길어야 두 세 페이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았거나 생각하는 방향을 좋은 영어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내가 접어놓은 항목들은:

느낌전달받기Appreciation, 건축Architecture, 예술과 뉴스Art and News,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 세상을 변화시키기Changing the World, 감성자본Emotional Capitalism, 명성Fame, 천재Genius, 지고한 필요Higher Needs, 역사History, 등잔밑이 어두운 문제Incumbent Problem, 오래가는 사랑Long-Term Love, 과식Overeating, 공손Politeness, 팝 뮤직Pop Music, 유혹Seduction, 자기계발서Self-Help Books, 섹스와 사랑Sex and Love, 섹스해방Sexual Liberation, 속물근성Snobbery, 학교성공 대 인생성공Success in School vs. Success in Life, 약올리기Teasing, 물탱크 타워Water Towers, 강점이란 약점Weakness of Strength, 지혜Wisdom

이 책, [논어] 정도를 그로기상태로 보내는 한 방이다. 결투썸에서 온갖 품새로 품잡는 무술인을 총 한 방으로 간단히 해치우는 장면이랄까. 바둑관련 신비주의 언설을 알파고 한 방으로 해치웠던 2016년의 이벤트도 떠오르고. 01/19/2020

- *Where Good Ideas Come From: The Natural History of Innovation.* Steven Johnson. Riverhead Hardcover. 2010.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연구 그룹이나 조직의 특성은 뭘까? 이 질

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훌륭한 책이다. 관련 책들 중에 독보적이다. 많은 사례를 세밀하게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한 특성들이 모여 있다. 알고 있어야 할 사실들이 많다. 몇개를 일별하면 이렇다.

- 경쟁이 혁신의 동인이라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 시각이고, 개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 각자의 직관들이 우연히 서로 다른 직관을 만나고, 각자의 아이디어들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과 조합되어야하므로.
- 좋은 아이디어는 주변의 제약조건에서 온다. 우리 주변에서 물려 받고 알게된 것들, 주변에서 덩굴던 것을 주워 재조합해서 나온다. 주변에서 가능한 것들을 쉽게 만나고 알아챌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
- 잘 짜여진 수직조직 vs 잘 연결된 수평시장. 1대 1000이 넘는 순간 수평적인 시장조직에서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흘러나온다.
-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네트워크 상태가 중요. 사람들이 자주모여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섞이고 발표하는 모임, 연구실마다 열린 문, 이런 것들이 액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들이 서로 흐르고 섞이게 이끈다. 각자는 대개 얼핏한 느낌(아이디어 부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느낌 부품들이 조합되어 좋은 아이디어로 합체되려면 액체 네트워크 환경이 중요. 각자가 얼핏 드는 생각들을 쉽게 기록하고 서로의 기록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이 필요.
- 기록하라. 느낌 부품들은 오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하다. 모든 느낌들은 빠뜨리지 말고 기록하고 주변에 머물도록 하라.
- 산책하라. 우연히 머리에 스치는 생각들, 그동안 쌓여진 지식들이 새롭게 변주되는 순간들. 이것들은 많은 경우 산책하는 중에 온다. 좋은 산책로를 제공하라.
- 틀려도 좋다. 틀리면 나서서 살펴보게 된다. 맞으면 제자리에 있게 하고. 실수는 혁신으로 가는 계단.
- 원래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를 찾아 적용하라. 다른 분야, 다른 목적에서 구축한 지식과 시스템을 활용하라.

- {market, non-market} × {individual, networked} 의 네 조합중에서 “non-market & networked” 조합이 혁신 아이디어들을 이끈 중요한 하부구조였다. 지금이 어느때 보다 더 그렇다. 시장이 이끄는 경쟁만이 혁신을 이끈다고 생각하면 오산.

많은 페이지들을 접어 놓았다. 29군데 이상.

이미 이 책 이전에 다른 책들로 Steven Johnson을 만났지만 이 책이 백미다. 03/24/2013

- *Mind Wide Open: Your Brain and the Neuroscience of Everyday Life.* Steven Johnson. Scribner. 2004., *Everything Bad is Good For You.* Steven Johnson. Riverhead Books. 2005.

재미있게 읽은 Steven Johnson의 다른 책들이다. [*Mind Wide Open*]은 뇌과학(뇌생리학?)이 밝혀 놓은, 우리의 판단이나 감정이나 이성을 컨트롤하는 뇌속의 화학물질(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세로토닌 등)에 대한 현대 뇌과학의 성과들 이야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뇌의 활동을 지배한다. 관련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Everything Bad is Good For You*]는 우리가 흔히 하는 탄식들, TV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컴퓨터게임이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다, 저질 드라마의 폐해, 등등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일갈. 세속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사실은 사람을 더 현명하게 만든다는. 설득력 있었다.

03/24/2013

- *On Human Nature.* Edward O. Wils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1992년 1월 31일에 구입했다고 기록돼있다. 지금 기억에는 따스한 봄날에 이 책에 빠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1-2월의 겨울이었나보다.

인상깊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쉬우면서 수려한 영어 문장에 매료된 책이 기도하다. 이 책을 만난이후로 Edward O. Wilson의 저술에 빠졌었다.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라는 분야를 만든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DNA가 인간의 모든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열쇠라고 보는 분야. 환경과 교육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과 대치하고. Wilson

교수는 두 번 풀리처상을 받았다. 이 책으로 1979년에 한 번, 1991년에는
개미제국에 대한 책으로 또 한 번.

귀국해 보니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국내에서 개미에 대한 책으로 국내 과
학서술관련 상도 받고, 이런 저런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알고보니 Wilson
교수의 제자였다. 스승의 책과 얼마나 다른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04/04/2010

- *Biophilia*. Edward O. Wils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On Human Nature*]에 빠지고나서 곧이어 산 책이다. 1992년 3월에 구입
했다고 기록 돼 있다. 다시한번 내용도 내용이지만 쉽고 수려한 영문장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내 머리에 서서히 각인되었던 다양한 생물종의 소
중함. 04/04/2010

- *In Search of Nature*. Edward O. Wilson. Island Press. 1996.

1995년 귀국후에도 Wilson교수의 책을 꾸준히 구입해 읽어보았다. 1997
년 8월 16일 구입한 것으로 기록 돼 있다. Amazon.com에서 도착한 날일
것이다. [*On Human Nature*]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시 새롭게 서술하
고 정리한 내용. 수려한 영문장에 빠져보기를. 74페이지까지 읽고 중단한
것으로 표시 돼 있다. 04/04/2010

-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3rd edition. Herbert A. Simon. The MIT
Press. 2001.

구매날짜는 기록되지 않았다. 읽은 시기는 2003년 여름과 2004년 봄 사
이일 것이다. 2003년 7월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후, 학교를 오가는 길에
몰두하며 감탄했다. “이게 누구냐”며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게 누구일까”
며. 보통 공력으로는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담지는 못할
거라며. 이 책을 쥐고 출퇴근하며 가슴 뛰던 시간들이 생생하다. 200여
페이지의 작은 책이다. 19 부분이 새길만한 페이지들로 접혀있다.

읽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았던 것 같다. Herbert Simon은 경이로
왔다. 컴퓨터과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행정학자. 그 각각의 분야에서

노벨상에 해당하는 상을 모두 받았다(Turing Award, Nobel Prize, ...). 이게 어떻게 가능하거나 하단 말인가? 그리고 CMU의 School of Computer Science의 초석을 놓은 “건축의 아버지”였다. 미국 컴퓨터과학분야 공히 1위의 학과를 만들어간 분. 그 학과의 문화와 철학을 수립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이 책 이후로 Herbert Simon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04/04/2010

- *Reason in Human Affairs*. Herbert A. Sim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The Harry Camp Lectures at Stanford University, 1982) 107페이지의 짧은 책. 그러나 나는 14 부분을 접어났다. 14편의 인상깊은 부분들. 넓고 깊은 Herbert Simon. 인간 조직체에 대한 통찰. 이성, 감성, 진화, 조직의 이성 등등에 대한 쉬운 영어로 깊은 통찰을 드러낸다. “아, 이 사람”이라는 경탄이 어김없이 들게 했다.

우리의 이성은 항상 제한될 수 밖에 없다(bounded rationality). 그리고 기억나는 이야기: 이론은 항상 실재의 감당못할 복잡성을 만나서는 적절히 포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경험담. 덕택에 당시 나는 용기를 냈고 담담히 받아들였다. Sparrow시스템을 만들며 학생들과 분투하던 당시. 실재 세계에 유용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위해선 이론의 정갈한 범주를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결정들에 담대했다. 04/05/2010

- *Models of My Life*. Herbert A. Simon. The MIT Press. 1996.
Herbert Simon의 자서전. 모두 읽지는 못했다. 내가 관심가지는 분야만 읽었다. 어린시절과 CMU의 Computer Science 학과를 미국 최고로 이끌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기억난다, 학과가 세계최고를 지향할 때 그 인사정책은 어때야 한다는 Herbert Simon의 의견.

다음과 같이 책 내지에 내가 써 놓았다. “learned a lot, amazed, guided, felt blessed to meet you. 2005.1” Simon교수를 생각하면 가슴 깊숙이 차분해진다. 뭘까. 04/04/2010

- *Models of a Man: Essays in Memory of Herbert A. Simon*. The MIT Press. 2004.

2003년 Herbert Simon의 책을 처음 읽으면서 그가 2001년 타계한지는

몰랐다. 그의 제자들이 Simon교수와 있었던 일들을 에세이형식으로 모아 낸 책. 제자가 본 그의 여러 모습들. 연구하는 것은 어때야 하는가? 제자들의 에피소드들과 이런 저런 질문들에 대한 그의 방향설정. 어느 제자는 15년간 매달 있었던 개별 미팅의 기록을 질문과 답변들로 모아놓았다.

책 내지에 쓴 내 코멘트는 “learned a lot, amazed, felt in love. 2004.12”이다. 500여페이지의 책. 내가 접어 놓 페이지는 14편. Simon 교수같은 사람들이 있던 미국이 과연 쉽게 쇠퇴할까? 04/04/2010

-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도서출판 이레. 2004.

책 내지에 이렇게 써 놓았다. “2007.7.6(금) Yes24에서 받다. 예상밖으로 놀라운 ‘그래 바로 그거야’를 일으키는 글 들이다. [시골과 도시에 대하여]와 [아름다움의 소유에 대하여]를 우선 읽고나서.”

알랭 드 보통에 빠지게 한 책이다. 내가 평소에 어렵듯이 가지고 있고 따랐던 생각들을 어쩔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해 놓았을까를 연발하며 공감했던 책. 한국에서 한국문화(유불교문화)에 젖은 교육과 혜택을 받은 내게 알랭 드 보통의 이야기는 그 것을 다시한번 재치있게 강조해 주는 면이 여럿 있었다. 04/04/2010

-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도서출판 이레. 2007.

“2007.7.6(금) from Yes24 bookstore”로 기록돼 있다. [여행의 기술]과 같은 날 구입한 책이다. 왜 그 때 알랭 드 보통의 책을 두 권이나 샀던걸까? 건축에 관심이 많던 내게 단비같은 에세이. 공감충만.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는 알고 있겠지 모두들. 학교의 강의/연구 건물을 손수 디자인해야 겠다고 다시 한 번 꿈꾸게 한 책. 2008년 여름을 지냈던 MIT Stata Center의 모습에 비추어도,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 04/04/2010

- *How Proust Can Change Your Life*. Alain de Botton. Vintage International. 1997.

“2008년 8월말 from Yes24 bookstore”로 기록 돼 있다. 알랭 드 보통의 글들에 빠지고 나서 원서를 사 읽기 시작했다. 그의 영어가 궁금했고, 두

번역([행복의 건축], [여행의 기술])과 달리 그 이외의 것들에는 실망스런 번역이 눈에 띄었다.

이 책의 위트와 즐거움, 인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힌트, 구체적인 방법들,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다. 기발한 구성.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미 익숙한 내용들을 서양의 레퍼런스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게 재미있었다. 푸루스트를 읽어봐야 겠다는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책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는 영국의 도서관 시스템, 그 덕에 알랭 드 보통의 저술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내 영어 실력의 한계선 바로 아래 위에서 끊임없이 찰랑거렸다. 이 책의 영어는 숲속의 새 처럼 항상 앞서 달아났다. 내용이 즐거워서이기도 했지만, 달아난 영어문장을 몸에 넣을 때 까지 읽고 읽고 읽었다. 04/04/2010

-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용옥. 통나무. 1989.

이 책은 나를 애타게 했었다. 20대 초반이었다. 누구나 읽어야 한다, 국내에서 학계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각자 “동양학”을 자기의 분야로 바꾸어 놓고 읽어야 한다, 우리는 “컴퓨터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변형해서 읽자, 고 전도하고 싶은 복음이었고 시급한 숙제였다.

1987년 1-2월경이었다. 연세대 앞 신촌길의 한 서점이었다. 시간에 늦은 친구를 기다리며 만난 책이 김용옥의 [여자란 무엇인가]였다. 유학가기 약 6개월전, 내 미래의 선명한 한 방향을 밝혀준 저자를 만난 순간이었다. 우연이었다. 제목에 흥미를 느껴 뒤척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빨려들어갔다. 그리고 6개월동안 김용옥의 저술에 몰두했다. 가슴뛰었던 그의 책들이었다. 당시 일기장을 뒤져보니 이렇게 써 놓았다. 김용옥의 책들을 모두 읽으면서 시간이 간 1987년의 봄, 오지 않는 입학허가서에 절망하면서 그의 책에 빠져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간 이 시절이 내게 이렇게 큰 감흥과 축적을 가져올 계기가 될 줄이야. (중략) 이 시절이 이토록 내게 가슴박질하는

정신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줄이야. (중략) 아. 난 어찌면 이토
록 바보였는지도 모른다. (중략) 1987.4.11. 오후 4시 30분 0
초.”

유학하면서도 항상 그의 새로운 책이 나오면 시카고 한인타운의 서점으로
달려갔다. 우편구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 학교가 있었던 어바나-
삼페인(Urbana-Champaign)에서 시카고는 250킬로정도 거리였다.

이 책은 의아하게도 지금 펼쳐보니 1989년에 출판된 책이다. 1987년 유학
떠나기 전에 읽은 느낌인데 유학중에 사 본 책이었나보다. 그럼 그렇지.
책 안쪽에 이렇게 메모돼 있다. “87년 읽었던 감동, 친구에게 준 책을
다시 구입하다. 1995.6.1. 귀국후 서울행.”

학술활동에서 언어사용의 원칙. 번역에 대한 일갈.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학술활동인지에 대한 장대한 서술. 내 가슴에 크게
울렸다. 애가 났다. 04/05/2010

- *여자란 무엇인가*. 김용옥. 통나무. 1986.

김용옥을 알게된 첫 책이다. 강의록이다. 그 서두, 그의 언어론. “우리는
우리언어생활에 정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의 주
체성을 확립하면서도 인류 보편사에 참여하는 개방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대학교수생활의 이런 저런 에피소드들과 함께 펼쳐지는 본
론. *여자란 무엇인가*. 내가 책을 읽으면서 온 정신이 몰두하게 되는 경험을
이 때 이 책을 통해서야 하기 시작했다. 04/05/2010

- *루어투어시앙쯔(위대목)*. 김용옥. 최영애. 통나무. 1986.

최영애의 중국소설 번역본이다. 하지만 내가 빠진 부분은 그 소설앞에 장
장 240여페이지에 달하는 김용옥의 [푸는글]이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의
역사, 뭐가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뻐끗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비교. 중국과 일본의 축적을 가지지 못한, 단절
된 한국. 무엇이 단절된 것인지 깊이 새겨야 하는 내용들. 중국과 일본에
대한 내 시각을 만들어 준 뜨거웠던 글. 04/05/2010

- 노자: 길과 얻음. 김용옥. 통나무. 1989.

라오쯔(노자)의 도덕경을 김용옥이 번역했다. 모두 셋 구들이다. 깊은 듯, 이해할 듯, 아리송한 듯, 외워야 할 듯, 이미 안 듯, 널리 전하면 안 될 듯, 상치리에게만 비전해야 할 듯. 누구나 가졌으면 하는 지혜일까. 깊고 충격적이고 재미있었다. 2-30대 오랜 기간 종종 들춰보는 책이었다.

짧게 표현되는 깊고 긴 이야기. 라오쯔의 시어. 그 내용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시어의 리듬까지는 번역되지 못했다. 아쉽다. 04/12/2010

- 탈 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김영민. 민음사. 1996.

이 책을 알게된 건, 김영민이라는 학자를 알게된 건 행운이다. 내가 어떻게 김영민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책 속에서 금방 풀렸다. 책 갈피에 이 책을 소개받은 [시사저널] 1996.12.5일자 서평 한 페이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기록 습관을 가졌었구나. 서평의 제목은 “오염된 학술 내리치는 ‘詩的 채찍’ ”.

내가 귀국해 대학에 선 때가 1995년 봄학기였으므로, 2년 정도 지난 때였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의 학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과 크게 공명하였다. 나는 많은 글에 동조했다. 그는 시대와 불화하는 사람이었다. 과학하는 사람과 배포가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책 이후 김영민을 따라 읽기 시작했다. 초창기 교수시절, 30대 초반 내 눈에 몰래 감춰 둔 시선을 강화시켜주었던 책. 04/04/2010

- 서울, 북촌에서. 김유경. 민음인. 2009.

“2009. 11.22. 일요일. 집에서 강남교보문고로 버스타고.”로 적혀있다. 김유경이라는 분에 관심가게 한 책이다. 글들이 담담하고 격조있다.

서울을 아는가. 서울 북촌의 발자취를 이 만큼 내게 잘 설명해 준 책은 없었다. 강남에 살면서 주변을 보면 세월이 쌓여있는 면모가 없다. “...척”하기만 하는 가짜가 많고. 북촌은 켜이 켜이 쌓인 이야기와 풍경에 진짜가 있다. 그 곳에 대한 잔잔하고 품위있는 해설. 저자가 기자였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른다.

서울은 다시 북촌이 일어날 것이다. 파리나 런던도 서울과 같은 과정을 거쳐왔다. 도시가 처음형성될 때 사람이 모이던 곳. 서울은 경복궁과 창덕궁 주변이다. 이미 북촌의 집값은 오를대로 올랐다. 04/08/2010

- *미당 시전집 1, 2, 3*. 서정주. 민음사. 1994.

30세 이후부터 시가 들어왔다. 10대 때는 연애를 위한 소품으로만 사용했던 시였다. 출퇴근 때 거의 항상 작은 시집을 들고 집을 나선다. 길거리 음식이 하나에 1000원 내외, 시 한편은 대개 3-400원이다. 입에 넣는 맛, 시어의 정교한 자극.

그러면서 서정주에 빠졌다. “국화옆에서”보다 월등한 시가 지천이었다. 그는 천재다. 잘 익은 최고의 술, 마약같은 작품들.

시는 모국어다. 외국인은 서정주 시를 온전히 느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외국시를 “읽지” 못한다. 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소네트 시구들이 내게 전혀 감동이 없었던 이유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단한 희곡이고 시구들이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은 오버하는것이리라. 내겐 중국시도 마찮가지였다. 시경의 시들, 두보와 이백의 시들, 이것들은 우리말 젊은 가수들의 랩보다 무덤덤했다. 당연히 중국어의 느낌이 내게 전달될 리 만무했다. 중국식 발음과 의미와 느낌으로 “완전번역”될 수 없는 한시, 우리 어른들은 진정 즐겼을까. 지금보다 더 한 외국어 트레이닝이 필요했을 것이다. 04/07/2010

-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권 303). 한형조. 여시아문. 1999.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한형조와 배병삼. 이 두 학자의 책들을 좋아한다. 부드럽고 깊은 글 솜씨를 가졌다.

이 책을 통해서 선불교의 경지를 엿보게 되었다. 선불교의 얼토당토않은 문답법의 의도를 눈동냥했다. 선불교의 시작을 만든 사람부터 대대로 이어진 학맥. 그들의 깨달음의 일기장. 이렇게 있었다니. 그 일기장의 부드러운 해설서이다. 선불교의 목표하는 바에 비하면 내가 하는 공부는 참으로 유치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책은 절판된 듯 했다. 올 초 신년하례식때 만나는 학생들에게 선물하려고 인터넷 책방을 뒤졌지만 구할 수 없었다. 전하고 싶은 책, 나만 좋아하는 책일리는 없다고 믿는다. 어찌된 걸까.

난 우리나라 절들을 워샵이나 세미나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가 고작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 뭔가 격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괴이했다. 우리 공부의 역사가 고작 100년은 아니지 않은가? 단절의 역사때문인 것, 연결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의 “공부” 1-2천년 전통은 절에 있다고 봤다. 절이 대학이었고 캠퍼스였지 않던가. 그 곳에서 우리 분야의 워샵을 열고 싶었다.

2003년 8월, 송광사는 나의 거친 의도를 진지하게 받아주었다. 그 해 8월 18-21일. SIGPL여름학교 워샵이 송광사 경내에서 열렸다. 대웅전 바로 옆 “불일국제선원”이었다. 5-60명 규모였다. 송광사는 “승보사찰”, 우리나라 3대 보물스런 사찰 중 하나다. 우리 역사에 남는 큰 학승들을 많이 배출한 연고지다. 다른 두 곳은 최고의 도서관을 갖춘 “법보사찰” 해인사와 붓다의 진신사리 조각을 가진 “불보사찰” 통도사. 04/07/2010

-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배병삼 풀어씀. 사계절. 2005.

공짜(공자)의 논어를 편하고 의미있게 번역했다. 내가 이제껏 얼핏 얼핏 주워 놓은 논어의 내용을 많이 바로잡아 주었다. 이런 좋은 번역에는 취하게 된다. 이 책은 “주니어클래식” 시리즈의 권 3 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부럽다. 나는 2008년 40대가 되어서야 즐겁게 논어를 읽게 되었다. 만학도 이만저만 만학인게 아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낸 배병삼의 [논어 1, 2]를 구입해서 읽게되었다. “한글세대가 본”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실망시키지 않는 배병삼의 실력이었다. 감사했다. 04/12/2010

- *Longitude*. Dava Sobel. Penguin Books. 1995.

부제는 “The True Story of a Lone Genius Who Solved the Greatest Scientific Problem of His Time”. “1/31/2001 from Amazon.com”으로 기록돼 있다. John Harrison이라는 18세기 기술자 이야기. 사로잡혔다. 18세기 중반까지는 항해중인 배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위도는 북극성을 보면 가능했지만 경도는? 당시 거액 2만파운드의 상금이 걸렸던 문제. 갈릴레오도 뉴턴도 해결책을 못 내놓았던 문제. 한 기술자의 영웅적인 성취. 그는 당시 주류에 있던 과학자가 아니었다. 우직한 기술자, 우직한 답안. 1730부터 1770년 사이.

우리는 이 시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없다. 비슷한 시기의 “김영”이라는 비극적인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만 얼핏 들릴 뿐이다. 04/07/2010

- *The Effective Executive*. Peter F. Drucker. Harper Collins. 2002.

“The Definitive Guide to Getting the Right Things Done”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2003년부터 2008년, 분투의 시절. 학생들과 실용적인 프로그램 분석 틀을 만들자고 북돋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읽어 간 책. 많이 배운 책. 배운대로 행동하는 지, 지금 잇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류의 책들을 한 동안 찾아 읽었다. 팀웍, 리더쉽 등등에 대한 지혜를 구체적으로(미국식으로) 안내하는 책들을 찾았다. 또 다른 책중에 [*The Wisdom of Teams*](저자: Jon Katzenbach, Douglas Smith, 부제: Creating the High-Performance Organization) 에서도 많은 상식과 지혜를 얻었다. 팀을 구성하고 동기부여하고 이끌고 중요한 일을 이뤄내는데 필요한 리더의 역할. 04/10/2010

- *Blink. The Tipping Point. Outliers*. Malcolm Gladwell.

세 권의 흥미로운 이야기. 미처 파악못했던 새로운 사실 혹은 패턴들. 보통의 영어로 쉽고 흥미롭게 펼쳐진다.

한가지. 저자는 저널리스트이고 수필가다. 세부 전공을 깊이 천착한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무늬를 감지하고 설득력있는 사실로 이야기를 만드는 데 능하다. 얼마 전 뉴욕 타임즈의 서평에 그의 최근 책[*What the Dog Saw*]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전문가 인터뷰로 분야를 파악하는 아마추어 애호가 빠지는 위험이 보인다고: 뻔한 것만 정리하거나 심하게 일반화하거나 아예 틀리게 파악하거나. 위의 초기 저작에도 그런 면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지는 못했다. 초창기의 저술들은 단단했으나 후반 저작에서는 험령하게 책을 쓴걸게다. 04/11/2010

- *What You Believe But Cannot Prove. What is Your Dangerous Idea?. What Have You Changed Your Mind About?.* John Brockman 편집. Harper Perennial. 각각 2006, 2007, 2009.

세 권이 시리즈다. Edge Foundation Inc.(edge.org)라는 곳에서 펴내고 있다. 부제는 각각, “Today’s Leading Minds Rethink Everything”, “Today’s Leading Thinkers on Science in the Age of Certainty”, “Today’s Leading Thinkers on the Unthinkable”.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 책 제목의 질문을 하고 답들을 모아 책으로 낸 것이다. 답변의 길이는 짧다. 한 사람당 길어야 3-4페이지. 다양한 전문가들 나름의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거구나. 다양한 스타일의 영어, 다양한 내용이 널려있다. 04/11/2010

- *Predicting the Future.* Leo Howe and Lana Wain 편집.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캠브릿지(칼다리)대학이 내 놓는 “The Darwin College Lectures” 시리즈 중 하나다. “다윈서원강의시리즈”는 어느 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들을 불러 강의하게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다. 이 책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주제였다. 물리학자(스티븐 호킹스), 수학자(이안 스투어트), 경제학자(프랑크 한), 종교학자(리처드 콰브리치) 등이 연사였다. 모두 영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다.

모든 강의에서 드러난 공통된 주장: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그 예측은 항상 틀리다. 물리학의 이론도 예측을 위한 것이었지만 항상 수정이 필요했지 않은가. 다른 모든 분야의 강의도 결국 같은 명제를 맴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윈서원강의시리즈” 책을 모으게 되었다. [*What is Intelligence?*], [*Understanding Catastrophe*], [*Time*], [*Ways of Communicating*], [*Origins*], [*The Body*].

이런 강의시리즈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어느 캠퍼스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시리즈의 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두터운 캠퍼스, 서울대학이 제일 먼저 만들게 될까? 04/12/2010

- *The Two Cultur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C. P. S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1959년 행한 “The Rede Lecture” 내용이다. 54 페이지의 짧은 강연록이다. Snow는 드물게 과학과 인문학에 직업을 가지고 꽤나 깊이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뜨겁게 연설한다. 영어는 영국 구어체가 많이 묻어있어서인지 내겐 어색하고 쉽지않은 문장이 종종 있었다.

영어보다도 내용 자체가 흥미로웠다. 왜 과학과 인문학이 소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한 일갈. 그리고 이 책이 또 내게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엘리트 대학교육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때문이었다. 영국 대학이 산업혁명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영국 학계가 과학기술을 주류로 받아들이는 과정. 경쟁 국가(미국, 독일, 러시아)와의 대비. 우리와 비슷한 면적과 인구를 가진 영국의 노하우, 살짝 엿보는 맛이 짝짝했고 기억할 사실들이 많았다.

“Rede Lecture” 시리즈의 전통을 나는 몰랐다. 이 글을 쓰느라 위키피디아를 뒤졌다. 1668년 부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캠브릿지대학에서 시작되어 여러 변형을 거친 유서깊은 강연시리즈였다. 부럽다, 현종때부터 지속된 강연 시리즈라니.

그들은 일찌감치 그들의 토속어로 모두와 소통하며 축적해갔다. 라틴어도 불어도 아니었다. 중국어로 소수끼리만 폐쇄적으로 소통하며 서서히 망해갔던 조선이 대비되었다.

04/12/2010